

한글 손글씨 대회 Korean Handwriting Contest Information

- ◆ PRIZES: Traditional Artisan crafts from Korean National Museum
- ◆ ELIGIBILITY: GIST international community members only
- ◆ DEADLINE: November 1st, 2020

CONTEST DETAILS

- (1) Handwrite a Korean poem on paper. See the attachment below for suggested poems or find your own Korean poem.
- (2) Any materials and size are allowed, but you must write the poem by hand in Korean.
- (3) Decorations, paintings, and coloring are optional and are not part of the evaluation criteria.
- (4)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help, feel free to contact the LEC (flora7027@gist.ac.kr / T.062-715-3703).

SUBMISSION DETAILS

- (1) Scan and submit a .pdf file of your handwritten poem in Korean to koreancontest.lec@gmail.com.
- (2) Deadline: 2020 November 1st (Sunday) 23:59PM (late submissions will not be accepted).
- (3) By entering this contest, participants give LEC permission to post their work on various online platforms such as webpages for LEC, GIST, and GIST College as well as LEC's YouTube, Instagram, and Facebook page.

CONTACT

LEC admin: flora7027@gist.ac.kr / T.062-715-3703

Suggested Poems

No.1. "No Flower Blooms Without Wavering" by Do, Jongwhan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No.2 "Wild Flowers" by Na, Taeju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No.3 “Oh My, A Stretch of Maple Leaves” by Kim, Yeongrang

<오메 단풍 들것네> 김영랑

오메,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붉은 감잎 날아와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 보며
오메, 단풍 들것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니
바람이 잦이어서 걱정이네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메, 단풍 들것네

No.4 “Azalea” by Kim, Sowol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이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No.5 “Prologue” by Yun, Dongju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No.6 “Return to Heaven” by Cheon, Sangbyeong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